

석사학위논문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중국연변지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류향란


2006년 8월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중국연변지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류 향 란

류향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1)

류 향 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박 태 수

본 연구는 중국 연변지역 결손가정의 가정형태와 가족 기능적 측면인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갈등, 의사소통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즉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을 분석함으로써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 및 사회전반에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행동의 예방이나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정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은 어떻게 다른가?

둘째, 가정형태에 따라 문제행동은 어떻게 다른가?

셋째, 결손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결손형태에 따라 문제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연변지역에 소재한 초중·고중²⁾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중에서 응답내용이 미비한 25부를 제외하고 1,425부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도구로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가족기능은 Beavers,

1)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2) 한국의 중학교·고등학교

Hampson 및 Hulgus(1990)가 개발한 척도(Self-report Family Inventory II:SFII)를 박효원(1993)과 조운정(2000)이 변안한 가족기능 척도로서 총 22개 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행동 척도는 기존 연구(김경화 1989; 김영국 1991; 김인자 1991; 민하영, 유혜경 1986; 정주영 1986; 정명희 1988; 허인수 1998)를 참조하여 조운정(2000)이 알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로서 총 28개 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수와 평균, t검증과 P검증, F검증, Scheffe검증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총 1,425명(중학교 2학년 741명, 고등학교 2학년 684명)의 청소년 중에서 결손가정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 453명(55.9%), 고등학교 2학년 357명(44.1%)이다. 부모의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조사를 살펴보면 한국으로의 출국이 411명(6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내 타 도시 장기거주가 50명(7.9%), 일본으로의 출국이 3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연변 지역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생활습관이 비슷한 한국과 경제가 발달한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연변 지역 결손가정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가정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상가정이 결손가정에 비해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형태에 따른 문제행동은 가정형태가 가족기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에는 그 영향이 심각하게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조치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결손형태에 따른 결손가정의 기능차이를 편모가정, 편부가정, 부모부재가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편부가정이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의사소통 등 가족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부모부재가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결손형태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결손형태와 상관없이 청소년 문제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결손형태는 가족기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문제행동까지는 유발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 연변지역 결손가정의 가족기능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 및 감소에 대한 해결 및 개선책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가족기능성 개선 및 증진을 위한 학교와 개인,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발달교육,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부모-자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기능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청소년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7
1. 결손가정의 개념, 형태 및 기능	7
2.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과 특성	14
3. 결손가정과 청소년 문제행동	22
III. 연구방법	27
1. 연구대상	27
2. 측정도구	27
3. 자료처리	30
IV. 연구결과 및 해석	31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31
2. 가정형태와 가족기능의 관계	33
3. 가정형태와 문제행동의 관계	35
4. 결손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36
5. 결손형태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42
V. 요약, 결론 및 제언	47
1. 요약	47
2. 결론	49
3. 제언	50
참고문헌	53
Abstract	59
부 록	62

표 목 차

<표 III- 1>	가족기능 척도검사의 하위요인별 내용	28
<표 III- 2>	문제행동 척도검사의 하위요인별 내용	29
<표 IV- 1>	가정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31
<표 IV- 2>	결손가정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32
<표 IV- 3>	가정형태에 따른 가족기능 분석	33
<표 IV- 4>	가정형태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36
<표 IV- 5>	결손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분석	37
<표 IV- 6>	결손형태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42
<표 IV- 7>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분석	44
<표 IV- 8>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정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족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권이중 외 5인(1998)은 이런 가정 생활이 중요한 이유로 가정은 아동에게 최초의 생활경험을 주고 가정에서의 경험은 계속적인 것이며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가족간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분위기는 상호협조의 정신을 배우게 하며 아동에게 신분관계를 규정지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소집단으로의 가정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이 조성될 것이며, 청소년은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접촉이 있는 한은 가정 외의 교육이 아무리 확대된다 해도 가정교육기능은 고유한 기능으로 존속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에서 경험한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사회에서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좋게도 또는 나쁘게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사회적응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은 다같이 건강한 부모와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야 할 것이다.

가정의 불행 또는 정상적 가정생활의 결손은 청소년들의 행동과 심리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결손가정 상태일 때는 정상가정과 다른 심리적 가정환경의 작용으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도시화와 산업화의 고도성장 속에서 가족구조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와 갑자기 들이닥친 IMF는 부부의 갈등을 극대화시켜 이혼, 가출, 별거 등의 문제를 일으켜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하던 부모의 가족관까지 변화하게 만들었다(김원옥, 2003).

이로 인해 사회는 이혼을 쉽게 결정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가정폭력이 일상화되고,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부모를 학대하는 패륜을 저지르기도 하며, 성적인 문란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위기가정은 늘고 있다. 이러한 위기 가정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문제는 가중되고 있다.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있는 가족처럼 자녀에 대한 보호 지도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불안과 인간성의 결핍 그리고 사회의 부적응 현상을 수반 또는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김지영, 2002).

이렇듯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결손가정 자녀들은 그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인성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일탈 행동에 관한 한국 내 많은 연구들 중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일탈행동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유은희, 전춘애, 1995)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려면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전체를 개입의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즉 위기 가정환경 증가에 따른 청소년 일탈행동의 증가는 청소년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한국 내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정화, 2002; 노정화, 2002; 서진경, 2002; 신지혜, 2002; 김혜영, 2003; 송유진, 2003; 이정옥, 2003; 김지영, 2003; 이은경, 2003; 표하나, 2004; 유춘진, 2004)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심리적 환경 변인이 청소년

년 문제행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강조한다. 결손가정일 경우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많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그 결과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애정 대상의 상실에 따른 소외감, 우울감 등을 가지게 되며 건전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양육적 문제 등이 정서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됨으로서 성격장애, 비행, 가출, 도덕적·공격적 문제, 창의성결핍, 자신감결여, 열등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조퇴, 컨닝, 절도, 폭력, 자살, 학습부진 등 자신의 성장에 어려움을 준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경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민·집단소유제의 단일적 소유형태에서 국영·집체·개체·사영 경제가 공존하는 다양한 소유형태로 전환하는 등 대 규모의 변혁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의 자본·기술·경영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대외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대외접촉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연변지역도 개혁개방의 영향을 심각히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 가족구조, 인간관계, 생활양식 등 변화는 한창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고민, 갈등과 어려움을 증폭 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내면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서적 문제는 물론 비행의 급증이 기타 다양한 문제행동의 출현을 야기 시키고 있다.

深圳市위법범죄청소년의 가정배경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결손가정자녀가 30.5%를 차지했고 그 중 14~18세 청소년이 39%를 차지했다(周芦苇, 余長秀, 2002).

뿐만 아니라 2000년 중국 연변 조선족 중, 고등학생 632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허철수, 2000)결과에 의하면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중학교 남, 여학생(40.4%,33.6%)과 고등학교 남, 여학생(52.1%,43.1%)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꾸중이라 하였다. 싸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중, 고 각각 73.9%, 72.2%로 나타났고 음란비디오 및 연소자관람불가 영화를 본 경험은 중학교 남, 여 각각 29.5%, 16.0%로; 고등학교 남, 여 각각 44.6%, 16.7%로 한두 번 경험한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간기관 2000년~2002년 10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연길시³⁾의 범죄양은 줄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바 2000년도 형사범죄 안전 중 청소년 범죄인원이 222명(16.22%), 2001년에는 196명(15.07%), 2002년 10월까지는 159명(16.37%)이다. 그 중 단친 가정이 118명, 아버지 부재가정이 147명이다. 연길시 조사에 따르면 구조적 결손가정이 초등학교는 36.18%, 중학교는 40.05%, 고등학교는 26.4%이다(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2002). 위 사실에서 청소년 범죄와 가정구조가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라와 지역을 막론하고 중국 연변 조선족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결손가정은 부모의 결손 즉 기능적 결손에 따른 가정환경의 문제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 요인을 발생하여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손가정 자녀의 생활지도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가정현장의 실증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결손형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3)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8개 현시 중 한개 시

첫째, 가정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은 어떻게 다른가?

둘째, 가정형태에 따라 문제행동은 어떻게 다른가?

셋째, 결손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결손형태에 따라 문제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간 가족기능(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갈등,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간 문제행동(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결손형태에 따라 가족기능(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갈등,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결손형태에 따라 문제행동(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지역 일부 도시에 소재한 조선족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중국 모든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여 일반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측정방법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응답자들의 불성실한 응답, 자신의 사실을 감추려는 반응 경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 또는 고의로 자신을 나쁘게 표현하거나 잘 표현하려는 경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 내 청소년들의 부모를 제외하고 단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문제행동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중국연변지역 결손가정이 가정형태와 가족기능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본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결손가정의 개념, 형태, 기능,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과 특성, 결손가정 청소년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결손가정의 개념, 형태 및 기능

1) 결손가정(broken home)의 개념



결손가정은 부모가 아동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가정으로 가정의 기본적인 구성원인 부모가 사망(死亡), 별거(別居), 수형(受刑), 이혼(離婚) 등의 이유로 한쪽이 영구적으로 부재하는 가정(최현숙, 2004) 또는 물질적, 정신적 안정성을 결여한 가족이나 양친이 모두 부재한 가족과 넓은 의미로 가족 성원간의 애정이 결여된 가정을 말한다(유영주, 1984; 조흥식, 1997).

윤형숙(2000)은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의 사망, 이혼 및 별거로 인해 부모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부재한 가정 또 형태적으로 결손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본질적인 생활의 상호보장과 심리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으로 자녀의 양육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을 기능적 결손가정이라 하였다.

표갑수(1994)에 따르면 결손가정은 핵가족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조

부모에 상관하지 않고 양친 중의 일방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에 의하여 물질적 및 정신적 안정이 결여된 가정과 양친이 모두 부재한 가정 즉 아동만으로 또는 아동과 기타 가족원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며 양친의 역할의 중요성을 기본적 전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 사망, 별거,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손이 되고 기능적으로도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갈등, 의사소통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양육이 결여되어 가족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되는 편모가정, 편부가정, 부모부재가정을 결손가정이라고 정의 한다.

2) 결손가정의 형태

인간은 타인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지만 이들과 헤어지거나 사별하여 유대가 깨어지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가족의 유대가 깨어지는 가족해체는 넓게는 통합, 충성심, 합의, 가족단위의 정상적인 기능 등과 같은 가족 결속의 파괴를 의미하며, 좁게는 사별, 이혼, 별거, 유기 등으로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가정형태를 의미한다(강진희, 2004).

가정은 넓은 의미에서 형태적, 기능적 결손가정, 그리고 가족성원 간의 애정이 결여된 빈껍데기 가족 (empty-shellfamily)의 성격을 드러내는 심리적 결손가정이 있다(김수길, 1970).

박원희(1987), 김수길(1970), 김희(2004)에 따르면 형태적 결손가정은 부모가 아동과 함께 동거하지 않은 결손가정으로 가정의 기본적인 구성원인 부모가 사망, 별거, 이혼 등의 이유로 한쪽이 영구적으로 부재하는 가정을 말하며, 편부가정, 편모가정, 고아가 포함된다. 또한 양친이 있더라도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자녀의 양육이 결손 되어 있는 가정을 기능적 결손가정

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외형적으로는 양친이 모두 있다하더라도 가정의 본질적 기능인 생활의 보장과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자녀의 양육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을 기능적 결손가정이라고 한다. 즉 양친의 불화, 갈등, 방임 및 가정의 부도덕 등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되고 가족원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혼란 또는 해체를 경험하며 가정불화, 방임, 애정결핍, 무관심 등은 모두다 기능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윤경애, 2004; 김희, 2004).

특히 기능적 결손가정은 구조적으로 결손이 없으나 부모의 불화에 따른 갈등, 자식에 대한 방임 및 무관심,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빈곤 등으로 인하여 가족간의 우애가 단절되고 가족원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혼란 또는 해체를 경험하며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상호보장과 심리적·신체적으로 자녀의 양육이 결손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김희, 2004).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결손가정을 편모가정, 편부가정, 부모부재가정으로 정의한다. 또한 기능적 결손가정은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갈등, 의사소통 등 면에서 결손이 된 가정이다.

3) 결손가정의 기능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중간집단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려면 개인의 발전, 욕구충족, 자아개념, 자아정체감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결손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의 성장과 태도 형성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

대체로 결손가정을 살펴보면 가족구성원의 형태, 가족 상호협조체계가 불안하고 가정자체 내의 힘과 문제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오늘날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함으로써 현대가정은 여러 문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가족구조에 있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악화되어 그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주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현대 가정에서의 교육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규모의 축소는 자녀들에게 다면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감축시켜 인간관계범위가 줄고 사회예절과 질서, 인격형성에 문제점을 던져준다.

둘째, 산업화에 따라 취업률의 증가로 부모가 가정 밖에서 활동할 기회가 확대되어 의사소통의 기회가 감소되고 있다. 즉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심리적 유대감은 약화되고 가정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모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母性失調 현상마저도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보급과 물질적인 윤택화는 가부장적 권위의 상실을 가져와 가족해체 현상을 증가시켜 자녀교육에 주체의식이 신장되고 가족간의 갈등, 불화는 자녀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는 부모와 자녀간의 가치관의 격차를 발생시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나타나기 쉽다. 부모의 통제, 대화의 결핍, 가치관의 갈등은 자녀들로 하여금 동년배 집단 지향적이 되기 쉽고 자녀들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우려가 많다.

다섯째, 급속한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을 초래하고, 가정생활에서도 도시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러한 도시화는 가정의 고립화 현상을 초래하고 이런 생활환경속에서 아동들은 협동심, 봉사심, 개인과의 정서적인 유대가 결여되는 개인주의성향 또는 이기주의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섯째, 문제가정 또는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환경론자들은 흔히 “문제청소년 뒤에는 문제부모, 문제가정이 있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문제청소년, 비행청소년의 원인이 가정환경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자녀들의 양육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고 한다(차성숙, 2002).

이혼이나 사별의 증가에 의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잠재적으로 가족기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친 가족의 자녀는 양친가족의 자녀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 한쪽 부모의 결손은 단친 가족 자녀의 학업성취와 지적능력의 저하를 초래하는데 가족 내적인 제반 요인이 학교성적, 교우관계, 학습적응 등과 관련된 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단친 가족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정혜경, 2002).

결손가정의 경우 자녀들에게 부모 역할모델이 상실됨으로써 자녀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자녀를 통제하고 지도하던 부모의 부재로 인해 가족원들의 역할 분담이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고 부모 지도의 감소는 대인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최현숙, 2004, 재인용).

Minuchin(1974)은 가족체계간의 경계와 가족구성원들의 연합, 동맹 관계, 외부환경과 가족의 발달과업상의 스트레스, 가족구조의 결손과 관련하여 가족의 기능성을 측정하였다. 기능적인 가족은 명확하고 융통성 있는 경계와 부모-자녀간의 강한 위계질서, 그리고 변화하는 내적·외적(발전적·환경적)요구에 대한 가족구조의 융통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며 반대로 역기능적인 가족은 지나치게 경직(rigid)되거나 밀착(enmeshed)된 경계와 변화의 요구에 부적응 적이라고 본다(조윤정, 2000, 재인용).

결손가정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조윤정(2000)이 이용한 가족기능의 하위요인(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갈등, 의사소통)을 근거로 밝히고자 한다.

(1) 건강 · 유능성

건강 · 유능성은 행복, 낙천주의 문제해결과 경청 기술, 애정, 부모와 자녀간의 연합으로 대체되지 않는 부모간의 연합, 개성, 최소의 비판 패턴과 책임성의 정도에 관한 것을 평가한다(이경희, 2004).

가족의 건강 · 유능성은 가족체계의 전반적인 체계적 기능(Beavers, Hulgus & Hampson, 1988)으로 정의 되며 체계발달(growth)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 · 유능성이 높을수록 가족체계의 기능은 효율적이며 건강하다(조운정, 2000, 재인용).

(2) 애정의 표현성

양친과 자녀사이 그리고 형제 · 자매들 사이에 깊은 애정관계가 형성되고 있느냐는 자녀들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들에게 왜곡된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비행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신진규, 1997).

고승자(1985)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유형과 청소년 성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애정 표현성을 비롯한 가족의 애정적 결속력과 적응력은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족체계유형은 청소년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장애는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에 기인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안양희(1988)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기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 가족기능에 대한 반응의 지각불일치정도가 적을수록 학생의 정신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보고하였다.

(3) 갈등

갈등이론(conflict theory)에 의하면 사회는 기본적으로 협조적이 아니고 서로 갈등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된다. 힘은 갈등이 해결되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갈등이론가들은 누가 힘을 갖는가

를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사랑과 애정이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나 갈등과 힘이 가족체계의 기본요소라고 주장한다(가족심리학, 1995).

Sprey(1969)에 의하면, 가족은 성원들 간의 대립과 이익이 상충되는 주요 장으로서 일치와 조화를 위해 끊임없이 타협한다고 한다. 그는 갈등이 가족생활에서 영원히 종결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갈등을 해소한다기보다는 관리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족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협상, 교섭, 타협할 수 있는 성원들의 동기와 능력 및 공유된 일련의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갈등 관리방법에 따라 가족이 유지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정현숙, 2001, 재인용).

(4)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의 행동에 기호라는 수단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Branes와 Olson(1986)은 가족의사소통을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의 욕구나 감정을 서로 나누고, 가족의 역할이나 규칙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제”라고 하였다.

자녀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모에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왜곡 없이 전달하므로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와의 경험공유로 상호관계 확립 혹은 관계 확인에 자신감 및 안정감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청소년기 자녀에게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인성이나 행동 발달 등에 관계되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존의 부모와 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기능

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달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이다.

Raush와 Goodrich, Campbell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정보나 의도를 알림으로써, 어떤 문제에 대한 오해나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특히 부모와 자녀의 단결을 도모해 주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제공한다(Aldous,1978)고 하였다. 이영분(1983)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작용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정서교육에 많은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성되고 갈등을 생성시키고, 갈등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화되며, 최악의 경우 자녀의 정신질환을 초래하고, 사회적 문제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 내 의사소통을 “ 부모와 자녀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과정”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2.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과 특성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동 등 문제행동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학교 및 또래관계 지역사회의 청소년 생활환경과 개인적 특성이 청소년에게 적절한 성장을 유도하는데 실패한 결과로 청소년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견해이다.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Adolescence)이란 용어는 Latin어의 Adolescenc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한다(신기동, 2002, 재인용).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을 14~15세경부터 22~23세까지 규정하고 소년을 초등학교까지의 연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심리학자 Ausubel은 청소년 개념을 완성상황으로 보지 않고 계속적인 성장과정으로 보았다.

생물학에서 보는 청소년기는 사회, 문화적 특징과 남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제2의 증세인 신체적, 생리적 성숙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성적 성숙은 여자의 경우 12~13세, 남자의 경우 14~15세에 시작되며, 이 육체적인 성장은 일반적으로 여자의 경우 18~20세에, 남자의 경우 20~22세에 끝난다고 본다.

사회학에서 보는 청소년의 개념은 특히 독일의 사회학자 Schelsky의 유명한 저서 '회의 세대'에서 다루어졌다. Schelsky는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단계로서 아동의 역할은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연령을 14~25세로 규정하고 있다(教育學대백과사전, 1998).

교육학적 측면에서 독일의 교육학자 Poggeler는 인간성장 중에 청소년기만을 따로 떼어 개념화 할 수 없으며 '이것이 청소년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고, 청소년기를 단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教育學 대백과사전, 1998).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연령을 12세부터 24세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단계에 있는 아직 성인이 아닌 학생으로 정하였다.

2)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의 특성도 한마디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인 면에서 아동에서 성인

으로 변화하는 과도기(transition period)적 발달단계로서 인격형성과 생활향유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급속한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며 자아정체감 확립과 더불어 성인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습득해야 한다(이인정, 최혜경, 1995; 신기동, 2002).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특징은 생리적·사회적·심리적 특징으로 구분한다. 생리적 특징의 대표적인 것은 신장, 체중, 흉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성적인 성숙과 성의식이 형성되어 소녀들은 초경, 소년들은 몽정을 통한 사정현상으로 제2차 성징이 나타난다. 사회·심리적 특징은 ‘반항기’, ‘제2의 탄생기’, ‘질풍노도기’로 표현되는 이 시기에 모든 일에 과민 반응과 정서불안을 느끼고 고독을 즐기며, 낭만적·감상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종속적인(타율적, 의존적, 내적 정서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자율적, 독립적, 외적 정서관계) 동료 집단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教育學 대백과사전, 1998).

또한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부모로부터 독립과 이성과의 관계형성 등이 일어나지만 아직 사회적으로는 주변인의 위치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발달 상황을 보인다. 청소년들이 습득해야 할 발달과제로서는 자신의 신체 및 성 역할 수용, 동성 또는 이성친구와의 새로운 관계형성,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 인식, 직업선택 및 준비, 유능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적 기능과 개념 획득, 사회적 책임에 맞는 행동, 결혼과 가정생활준비, 과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가치체계의 발달 등이 있다(김동배, 권중돈, 1998).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특성에 의해 정체감 위기와 이에 따른 좌절,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기성세대의 권위와 간섭에 반항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노출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의 정서적 영역의 발달과업 즉 부모로부터의 정서

적 독립, 성적 충동이나 감정의 통제,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생애의 가치관 형성 등은 가족과의 상호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면 불안, 열등감, 우울, 문제행동, 비행 등과 같은 부적응행동으로 나타난다(승연경, 2003).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자아를 발견하고 독립된 인격체를 이행하여 가는 성장과정으로 순종과 반항, 희망과 절망, 이성과 현실타협 등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좌절을 맛보게 되며 정체감이 혼미에 빠지기도 하며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으며 심신이 미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인들에 대해 반항 또는 부정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혐오, 자신감 상실 등 위협에 머물 리기도 하고 자극에 민감하고 정서가 불안정하여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청소년 각 개인마다 성장·발달의 차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해당 연령에 있는 자라고 해도 반드시 똑같은 발달과 특징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사춘기의 시작 연령 및 발달속도와 기간은 선진국·후진국, 도시·농촌지역,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 영양섭취, 생활양식, 성장환경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정서가 강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이상주의적 경향과 사고가 높은 시기이다.

3)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개념, 유형 및 원인

아래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개념, 유형,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제행동의 개념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도 다르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부적응행동, 이상행동(異常行動)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사회병리학에서는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과 비행(delinquency)으로 불리고, 교육학에서는 문제행동, 요선도 행동(要先道行動) 또는 비행(非行)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서명희, 2004).

Ebel(1969)는 문제행동을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거나 인정되는 행동으로부터 일탈을 지칭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배적인 사회집단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행동, 특히 개인이나 집단에게 실질적 또는 감정적;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손상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Good, 1973, 재인용). 즉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서 가정, 직장, 지역 등에서 금지되고 비난 받는 행위이다(장미숙, 1999, 재인용).

청소년 문제행동은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학문적 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영역이 다르다. 심리학적 시각에서는 발달과업과 관련된 문제,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를 중심으로 문제행동을 다루는가 하면 청소년 자신이 호소하는 일상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상 있을 수 있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2) 문제행동의 유형

문제행동이란 반사회적, 비사회적, 신경증적, 자기 과시적 행동들을 일컫는다. 비사회적 문제행동으로 고립, 극단적인 내향성, 소심, 무기력, 함구, 백일병, 퇴행 등을, 반사회적 문제행동으로 거짓말, 절도, 난폭, 싸움질, 상해 등을, 신경증적 문제행동으로 발열, 두통, 복통, 편식, 식욕감퇴, 변비, 배설, 야뇨, 경련, 안면경련(tic), 손톱 뜯기, 과민, 주의산만, 야경, 고공공포 등을, 자기 과시적 문제행동으로 기언(奇言), 기행(奇行), 허영 등을 들 수 있다. 문제행동은 그 행동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 발생요인에 대한 치료나 지도가 더욱 중요하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한편,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비행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반사회적 행동, 일탈행동에 국한시켜 다루거나 청소년 문제행동에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인(1992)은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세 가지로 문제행동을 범주화하였다. 첫째, 자신의 발달단계나 지위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둘째,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셋째, 주위의 눈에 띄지 않는 행위의 결핍을 문제행동으로 제시하였다.

하영근(1990)과 최상(1993)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별로 나누어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가정생활에 관한 문제행동은 형제간 폭력, 부모에 대한 폭력, 도박, 가출, 부모에 대한 반항 등이며 학교생활 관련 문제행동은 무단결석, 조퇴, 불량 서클 가입 등이고,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행동은 자살 시도, 흡기 소지, 본드 흡입, 패싸움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역이란 법에 위법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그 위험성이 충분하여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반사회적 행동(Binder, 1988), 그리고 특정 시대의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행동과 청소년기에 기대되는 행동의 미 수행, 또는 왜곡된 행동,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장애(이봉건 역, 1989)와 사회나 소속 집단에 대한 부적응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3) 문제행동의 원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발은 단일 요인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많은 요인들 중에서 개인적인 요인, 가

즉적인 요인, 또래관계, 학교환경, 지역사회, 사이버 환경으로 요약될 수 있다(김진화 외 11명, 2003).

첫째, 개인적 요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인적인 요인은 보편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하고, 자기통제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반면,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고, 실패를 추구하는 동기가 높다는데 있다. 특히 공격성은 통제의 정도에 따라 보이는 문제행동양상이 다르다고 본다. 충동성 역시 문제행동과도 매우 밀접한 요인이다.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점이다.

둘째, 가족적 요인

가족환경 중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여부, 등 구조적 측면과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 등 기능적 측면은 청소년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 감독 소홀 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초기의 반사회적 또래와의 접촉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훈육이 지나치게 엄하거나 무관심할 때, 적대적·거부적 태도를 보일 때, 합리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일관성이 없을 때, 부모의 언행과 훈육이 불일치할 때, 부모가 자녀를 편애할 때 문제행동을 유발하기 쉽다. 부부간 불화, 가족간 폭력이 자행되는 가족의 갈등적 분위기, 주거환경 및 경제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경우,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또래환경

청소년 문제행동과 비행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또래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과 배척 여부는 문제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외에도 또래 집단의 성격, 또는 또래 집단 중 비행친구의 수, 처벌을 받은 친구의 수, 비행 또는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동의 정도 등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넷째, 학교환경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정규 학교교육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데서 온다. 학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성적이 뒤친 청소년을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감싸주지 못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터전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이다. 이 세 가지 맥락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던 지역사회는 최근에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학교라는 터전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학교 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이 펼쳐지는 생활세계이며 학교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앞선 문명이자 첨단 기술이다. 그런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배금주의 사고가 만연되면서 지역의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제행동에 빠져들도록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여섯째, 사이버 환경

오늘날 사이버 세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무한한 사이버 공간은 과중한 학교공부와 스트

레스에 지쳐 있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집중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며 사춘기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해방구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상호 의사소통 등의 긍정적인 기능 외에 각종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범죄와 폭력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인격 형성과정에 있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유해한 사이버 세계에 무방비 노출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 염려스러운 일은 기성시대들의 사이버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의 올바른 지도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살, 폭발물 제조, 엽기, 청소년 성 매매 등의 유해 사이트의 운영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란 사실과 이를 모방한 범죄가 가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사이버 세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김진화 외 11명, 200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연변 지역 결손가정의 결손형태에 따라 도덕적 문제행동, 물질적 문제행동, 공격적 문제행동, 음성적 문제행동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문제행동들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결손가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결손가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아래 한국의 선행연구와 중국의 실태 및 그 상황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최현숙(2004)에 의하면 정상가정 청소년에 비해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사회적 위축 및 우울, 불안 정도가 더 높고 행

동문제에서는 공격성이 더 높다. 대처기제에서도 결손가정 청소년이 정상가정 청소년보다 정서중심의 대처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 내 불화와 긴장의 정도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의 영향이 낮고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열등한 수준도 높다(안병주, 2002).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화목도 수준과 가족간의 불화긴장도 요인이 문제행동의 모든 영역과 높은 상관이 있고 열등감과 부모 효능감, 그리고 관계 효능감이 문제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실조 등은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쳐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도덕성이 결여됨으로써 청소년 범죄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이는 결손가정, 맞벌이 가정, 애정결핍가정, 혼욕결함·과보호가정, 갈등·긴장가정, 부도덕가정, 빈곤가정 등 유형별 문제가정이 청소년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적 전제에서 볼 수 있다(최화숙, 1991).

따라서 승연경(2003)은 가족 응집성 수준과 가족 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낮아지는데 즉 가족 내의 정서적 유대가 높고 가족 외부의 일이나 활동보다 가족 내부의 일이나 활동을 중시하고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효율적이라 한다. 또한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우울 및 문제행동은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류애란(2003)은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과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개방형 의사소통과 응집성이 낮을수록, 폐쇄형 의사소통은 높을수록, 적응성과 응집성은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높다고 하였다.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부모-자녀 간에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들(백미숙,2000; 임동숙,1999; 최규련,1996)과 같이 서명희(2004)는 가족 갈등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에서 부모-자녀간 갈등은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적 부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자녀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 부적응과 정서적 부적응을 많이 경험하며 또한 청소년 가출충동에도 영향(이민주, 2002)을 미친다고 한다. 즉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자녀간의 갈등의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정이 역할을 잘하지 못했을 경우 청소년 자녀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에 가족 내 갈등 예방 및 경감을 위해서 부모-자녀 간 대화와 해결방안이 요구 된다.

Kashani와 Shepper(1990)는 낮은 가족 지지는 청소년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Garnerfski와 Diekstra(1996)은 부정적으로 지각된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Brarner와 Windle(1987)에 의하면 , 부모의 지지나 애착이 강할수록 자녀의 음주, 비행 등의 부적응이 낮게 나타난다(차순호, 2003, 재인용).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는 인간관계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며 가족 구성원의 관계나 가정생활이 건전하지 못하고 결함이 있거나 하면 청소년의 인격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과 범죄의 길을 걷게 할 가능성이 많다. 가정의 정상적인 기능이 가정의 화목을 가져옴은 물론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가정생활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개혁개방과 더불어 취업과 부부 중 일방 혹은 쌍방이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진출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생기는 곳이 가족생활이다.

2004년 “중국민정부문”에서는 161.3만 건에 당하는 이혼수속을 접수하였는데 매일 평균 4000여 쌍의 부부가 파혼하였다. 이는 2003년에 비해 28.2만 쌍이 증가하였고 1984년에 비해 115.9만 쌍이 증가한 셈이다. 1970년 전국 이혼건수는 80만 쌍이었는데 1999년에는 120.1만 쌍으로 50% 상승하였다. 2004년 전국 이혼건수는 2003년에 비해 21.8% 증가했고, 2003년에는 133.1만 쌍이 이혼했는데 2002년에 비해 15.4만 쌍

이 증가 한 셈이다(新民周刊, 2005).

이혼가정증가와 더불어 北京市海澱區法院少年法庭(2003)에서 처리한 미성년 범죄사건 중 단친 가정소년범죄수가 총 범죄수의 26.4%이고 계친가정의 범죄수가 6.3%, 불안전혼인가정의 소년범죄수가 25.2%를 차지했다(尙秀云, 2004).

경제의 성장과 함께 해외취업은 연변의 경제수입과 생활보장에 중요한 영향이 있다. 1989년 이후 2004년까지 해외취업 인원은 13만 명에 달하고 그에 따른 수입은 20여 억불에 달한다. 2004년 한해의 해외취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흑자만 7.4억불에 이른다고 한다(연변일보,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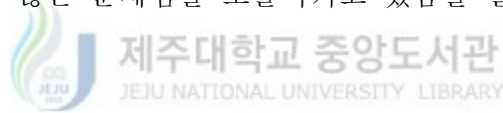
경제상, 생활상에서는 연변지역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초래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2000년에 집계된 연길시 출국인원 가정은 3,534가정으로서 그중 여성출국인원가정이 2,104가정이다. 출국 기간은 길게는 9년, 짧게는 2개월이다. 조사에 의하면 부모 쌍방이 출국한 가정은 정기적으로 자녀와 연계를 취하지만 일방이 출국한 가장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이들과의 연계가 적어지고 있다. 동시에 출국인원 가정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 외 단친 가정이 1,882호가 있는데 그중 여자가 호주로 있는 가정이 1,072가정이다. 기타(교생, 세집에서 동거하는)사람은 366가정이다.

연길시 교육국의 통계(2000)에 의하면 32개 중소학교 총학생수는 43,958명으로 그 중 단친 가정과 부모 출국가정이 16,598명(37.8%)이며 제일 많은 학교는 61.3%를 차지하고 제일 많은 반급은 89%를 차지한다. 그 중 부모 일방 출국은 7,854명(17.9%), 부모 이별은 4,533명(10.3%), 부모 쌍방 출국은 2,121명(4.8%)이다. 부모 일방 사망은 1,039명(23%), 부모 쌍방 사망은 75명(0.7%)이다, 기타 원인에 의해 가정구조가 결손 된 학생은 926명(2.2%)이다.

가정의 문제에 따라 2003년 연변 주교육국에서 발표한 “做好未成人保護 및 豫防未成人犯罪工作”에 따르면 2000년 전주⁴⁾ 중소학생⁵⁾

범죄자는 342명으로 총 미성년 범죄자의 69.4%(493명)를 차지하고 재학 중인 중소학생 수의 1.0%를 차지한다. 2001년 1-10월까지 전주 중소학생 범죄자는 392명으로서 총 미성년 범죄자의 53.2%(737명)를 차지하여 재학 중인 중소학생수의 1.2%를 차지한다. 조사에 의하면 전주 조선족 중소학생 중 단·무친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조선족 중소학생의 50%이상으로서 많은 학급에서는 90%까지 차지한다. 검찰기관(2001)의 통계에 따르면 단·무친 가정의 중소학생 범죄 수는 총 학생범죄의 70%이상을 차지한다(延邊州教育局, 2003).

이와 같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가정환경의 결함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가정의 정서적, 사회적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청소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결손가정에서의 비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결손가정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4) 연변조선족자치주
 - 5) 한국의 초중등학생

Ⅲ. 연 구 방 법

본 장에서는 중국 연변지역 결손가정의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처리 및 자료 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중학교(초중)2학년, 고등학교(고중)2학년 1,45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무응답과 무성의 응답자 25명을 제외한 1,425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족기능척도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Beavers, Hampson 및 Hulgus(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 (Self-report Family Inventory II: SFII)를 박효원(1993)과 조윤정(2000)이 번안한 가족기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개 문항으로서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갈등’, ‘의사소통’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일부 단어는 본 연구자가 중국 연변지역 청소년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측정

하였다. 각 문항들은 5단계 Likert척도로서 5점 만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이며 총 점수 범위는 22~110점이다.

본 조사대상이 응답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77이다. 이를 세분화해서 보면 건강·유능성 척도의 점수범위는 8~40이며 신뢰도계수는 .84이다. 애정의 표현성척도의 점수범위는 3~15이고 신뢰도계수는 .76이다. 갈등척도의 점수범위는 5~25이고 신뢰도계수는 .76이다. 가족간 의사소통척도의 점수범위는 6~30이며 신뢰도계수는 .50이다.

가족기능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표III-1> 가족기능 척도검사의 하위요인별 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계수
건강·유능성	1, 2, 5, 6, 10, 11, 12, 13	8	.84
애정의 표현성	7, 9, 16	3	.76
갈등	18*, 19*, 20*, 21*, 22*	5	.76
의사소통	3, 4, 8, 14, 15, 17	6	.50
전	체	22	.77

* : 역산 채점한 문항임.

2)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 척도는 기존연구(김경화 1989; 김영국 1991; 김인자 1991; 민하영;유혜경 1986; 정주영 1986; 정명희 1988; 허인수 1998)를 참조하여 조윤정(2000)이 알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개 문항으로, ‘도덕적 문제행동’, ‘물질적 문제행동’, ‘공격적 문제행동’, ‘음성적 문제행동’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덕적 문제행동 7문항, 물질적 문제행동 3문항, 공격적 문제행동 9문항, 음성적 문제행동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범주는 ‘전혀 없다(0점)’, ‘거의 없다(1점)’, ‘가끔 한다(2점)’, ‘종종 한다(3점)’, ‘많이 한다(4점)’까지의 5가지이며 총 점수 범위는 0~112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조사대상이 응답한 자료에 근거한 신뢰도계수는 .92이다.

이를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도덕적 문제행동의 점수범위는 0~28점, 신뢰도계수는 .79이다. 물질적 문제행동의 점수범위는 0~12점, 신뢰도계수는 .76이다. 공격적 문제행동의 점수범위는 0~36점, 신뢰도계수는 .69이다. 음성적 문제행동의 점수범위는 0~36점이며 신뢰도계수는.80이다.

문제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내용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문제행동 척도검사의 하위요인별 내용

하위요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계수
도덕적 문제행동	규정위반, 등록금, 책값전용, 거짓말, 무단결석, 가출 등	3, 6, 10, 17, 19, 25, 26	7	.79
물질적 문제행동	절도, 금품갈취 등	9, 13, 21	3	.76
공격적 문제행동	욕설, 기물파괴, 폭행, 패싸움, 자해행위, 문신	11, 12, 14, 15, 16, 18, 23, 27, 28	9	.69
음성적 문제행동	흡연, 본드, 신나, 부탄가스 흡입, 유흥업소출입, 불순이성교제, 음란서적, 비디오 관람, 음주 등	1, 2, 4, 5, 7, 8, 20, 22, 24	9	.80
전 체			28	.92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2005년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중학교(초중)2학년, 고등학교(고중)2학년 학생 1,42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분하였고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12.0을 사용하였으며 적용된 자료처리 및 통계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가정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와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결손형태에 따른 결손가정 영역별 차이와 결손가정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과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의 결과 및 해석에서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정형태에 따른 가족기능과 문제행동의 관계, 결혼형태에 따른 가족기능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와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가족기능과 문제행동의 차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하였다.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결혼형태를 조사하기 위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 표IV-2>로 구분하여 설명하려 한다.

가정형태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가정형태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명(%)

특 성 (변 수)	학 년		성 별		전 체
	중 2	고 2	남	여	
정상가정	288(46.9)	327(53.1)	248(40.2)	367(59.8)	615(43.1)
결혼가정	453(55.9)	357(44.1)	317(39.1)	493(60.9)	810(56.9)
전 체	741(52.0)	684(48.0)	565(39.6)	860(60.4)	1425

<표 IV-1>에 나타난 가정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조사대상 총 1,425명 중 가정형태에 따라 정상가정 청소년이 615명(43.1%), 결손가정 청소년이 810명(56.9%)으로 표집 되었다. 그 중 중학교 2학년 청소년 741명(52.0%),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684명(48.0%), 남자청소년 565명(39.6%), 여자청소년 860명(60.4%)이다. 결손가정 청소년 중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은 453명(55.9%),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은 357명(44.1%), 남자청소년은 317명(39.1%), 여자청소년은 493명(60.9%)을 차지함으로써 총 조사대상 중 결손가정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결손가정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IV-2>와 같다.

<표IV-2> 결손가정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 성		N (%)
결 손 형 태	편 모 가 정	163(25.2)
	편 부 가 정	290(44.9)
	부 모 부 재	193(29.9)
외 국 출 국 및 국 내 타 도 시 장 기 거 주	한 국	411(65.2)
	일 본	39(6.2)
	싸 이 판 · 미 국	50(7.9)
	기 타 국 가	80(12.7)
	타 도 시 장 기 거 주	50(7.9)

<표IV-2>에 나타난 결손가정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결손형태에 대한 조사를 보면 편모가정 청소년이 163명(25.2%), 편부가정 청소년이 290명(44.9%), 부모부재가정 청소년이 193명(29.9%)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를 살펴보면, 한국으로의 출국이 411명(65.2%), 일본으로의 출국이 39명(6.2%), 싸이판·미국으로의 출국이 50명(7.9%), 기타 국가로의 출국이 80명(12.7%), 타 도시 장기거주 50명(7.9%)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의 출국인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배경은 동일언어 사용, 유사한 문화풍습 등을 꼽을 수 있다.

2. 가정형태와 가족기능의 관계

가설 1.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간 가족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정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 정상가정과 결손가정 간에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표 IV-3> 가정형태에 따른 가족기능 분석

구분		N	M	SD	t
건강 유능성	정상가정	615	4.33	.55	6.86***
	결손가정	810	4.09	.71	
애정의 표현성	정상가정	615	3.96	.83	4.64***
	결손가정	810	3.75	.92	
갈등	정상가정	615	1.91	.78	-5.54***
	결손가정	810	2.17	.93	
의사소통	정상가정	615	3.68	.50	5.04***
	결손가정	810	3.53	.59	
전체	정상가정	615	3.55	.38	4.21***
	결손가정	810	3.45	.47	

*** p<.001

<표 IV-3>에 나타난 가정형태에 따른 가족기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손가정과 정상가정의 가족기능을 비교해 보면 결손가정은 정상가정에 비해 건강·유능성(M=4.09), 애정의 표현성(M=3.75), 의사소통(M=3.53)면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가 있으므로 낮은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갈등은 결손가정이 정상가정보다 높게 나타나(M=2.17, $p<.001$) 갈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결손가정(M=3.45)은 정상가정(M=3.55)보다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갈등, 의사소통 등 4가지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가 있으므로 낮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연구 가설 1에서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간 가족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과 같이 결손가정은 정상가정에 비해 기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결손가정은 정상가정에 비해 가족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형태적 정상가정과 결손가정은 우울, 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김지영, 2002)를 보였고 결손가정학생은 정상가정 학생에 비해 더 비합리적인 신념(정경숙, 1990)을 갖게 되는데 가정형태가 가족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형태에 따라 부나 모의 결손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특히 가정생활과 경제적인 면에서 물론 정신적인 어려움도 커서, 불안하고, 두려운 생활을 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이고 불안을 느끼며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봄으로써 그의 행동도 비교적 소극적이며 충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현은강, 이순덕, 1991;김태준, 1992).

이로 인하여 청소년은 학업성취수준 및 성취불안, 학교생활에서 낮은 적응력(이강선, 1999; 이종은 외,2001-b; 이학정, 2003)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상관관계에서 가족의 기능이 높음에 따라 학교생활적응도 커진

다(정혜경, 2002).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는데 가정의 협력이 중요하며 가족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법이 된다.

오승숙(1990)에 의하면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자신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진솔한 대화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서적 지지는 ‘관심과 애정’ 이라고 인식한다(김희진, 1995)고 보고하고 있다.

관심과 애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부모-자녀 갈등은 바람직 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므로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은 극복될 수 있다(송명자, 2001).

연구 결과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관심과 애정결여, 대화결핍, 갈등증가는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며 문제행동의 증가를 초래한다(김태우, 2002; 최상숙, 1993; 정유미, 1997; 김성연, 1998). 문제행동이 반드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청소년 가출이나 자살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3. 가정형태와 문제행동의 관계

가설 2.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간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정형태에 따라 문제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표 IV-4>와 같다.

<표IV-4> 가정형태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구 분		N	M	SD	t
도덕적 문제행동	정상가정	615	1.26	.37	-.63
	결손가정	810	1.28	.42	
물질적 문제행동	정상가정	615	1.47	.44	-1.88
	결손가정	810	1.52	.49	
공격적 문제행동	정상가정	615	1.12	.36	.06
	결손가정	810	1.12	.35	
음성적 문제행동	정상가정	615	1.33	.38	-1.82
	결손가정	810	1.37	.43	
전체	정상가정	615	1.32	.34	-1.48
	결손가정	810	1.35	.38	

<표IV-4>에 나타난 가정형태에 따른 문제행동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손가정 청소년과 정상가정 청소년은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가설 2에서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간 문제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4. 결손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가설 3. 결손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IV-5>에 나타난 결손형태에 따른 기능차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 결혼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분석

변인	구분	N	M	SD	F	Scheffe
건강 유능성	편모가정	163	4.28	.58	10.62***	A>C
	편부가정	290	4.11	.70		
	부모 부재가정	193	3.93	.79		
	전체	646	4.10	.71		
애정의 표현성	편모가정	163	3.91	.87	5.83**	A>C
	편부가정	290	3.75	.91		
	부모 부재가정	193	3.59	.96		
	전체	646	3.74	.92		
갈등	편모가정	163	2.10	.90	.61	N/S
	편부가정	290	2.17	.95		
	부모 부재가정	193	2.21	.94		
	전체	646	2.17	.93		
의사소통	편모가정	163	3.63	.51	4.97**	A>C
	편부가정	290	3.53	.60		
	부모 부재가정	193	3.44	.64		
	전체	646	3.53	.59		
전체	편모가정	163	3.56	.44	7.92***	A>C
	편부가정	290	3.46	.46		
	부모 부재가정	193	3.36	.51		
	전체	646	3.46	.48		

p<.01 *p<.001(A: 편모가정, B:편부가정, C:부모부재가정)

(1)결혼형태에 따른 건강· 유능성의 차이

결혼형태에 따른 건강· 유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건강· 유능성의 경우 결혼형태에 따라 편모가정(M=4.28), 편부가정(M=4.11), 부모 부재가정(M=3.93)순으로, 부모부재가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10.62, p<.001). 이는 통계적으로 결혼형태에 따라 건강· 유능성이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집단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cheffe검증한 결과 A가 C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편모가정은 부모부재가정 비해 가족기능에서의 건강·유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2) 결손형태에 따른 애정의 표현성의 차이

결손형태에 따른 애정의 표현성의 차이를 비교 해 보면 애정의 표현성의 경우 결손형태에 따라 편모가정(M=3.91), 편부가정(M=3.75), 부모부재가정(M=3.59)에서 부모부재가정이 애정의 표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5.83, P<.01). 이는 통계적으로 결손형태에 따라 애정의 표현성이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집단간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cheffe검증한 결과 A가 C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편모가정은 부모부재가정 비해 가족기능에서의 애정의 표현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부재가정의 경우 애정의 표현성이 가장 낮고 편모가정이나 편부가정의 경우 한쪽 부모의 존재는 부모의 부재보다 애정의 표현성이 높다. 더욱이 편모가정 즉 엄마와 함께 있는 청소년 일 경우 편부가정 즉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경우보다 애정의 표현성이 높다.

(3) 결손형태에 따른 갈등의 차이

결손의 형태에 따른 갈등의 차이를 비교 해 보면 갈등의 경우 편모가정(M=2.10), 편부가정(M=2.17), 부모부재가정(M=2.21), 편모가정의 경우 갈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61). 이는 통계적으로 결손의 형태에 따라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가설에서 결손형태에 따라 갈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4) 결손형태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

결손형태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를 비교 해 보면 의사소통의 경우

편모가정(M=3.63), 편부가정(M=3.53), 부모부재가정(M=3.44)에서 부모 부재가정 경우((M=3.44)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결혼 형태에 따라 의사소통이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F=4.97, P<.01).

집단간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cheffe검증한 결과 A가 C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편모가정은 부모부재가정 비해 가족기능에서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부모부재가정은 다른 의뢰가족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됨을 시사하며 편모가정 즉 엄마와 같이 있을 경우가 편부가정 즉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경우보다 의사소통이 더 잘 됨을 알 수 있다.

Thomas(1977)(김경화, 1989)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 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다. 문제가 있는 자녀의 가족을 보면 성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공통된 문제이다(김재문, 2002, 재인용).

전체적으로 결혼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을 비교해보면 편모가정(M=3.56),편부가정(M=3.46), 부모부재가정(M=3.36)에서 부모부재가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7.92, p<.001). 이는 통계적으로 결혼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은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Scheffe검증한 결과 A가 C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편모가정 즉 엄마와 함께 생활 할 때가 부모부재가정보다 가족기능이 원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의 결혼에 따라 부모의 부재는 그 형식적이 아닌 성장과정에서 기능적인 역할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결혼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결혼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이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른 선행연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상가정 아동과 달리 결손가정 아동은 편부, 편모, 양친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역할, 표현 성향을 학습하고 표출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상가정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존심을 가지며 자기 판단·책임의식이 철저하고 활동적·성취욕이 강한 성향이 결여된다(천성렬, 2001).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가정에서의 상처를 받은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며(이현숙, 1988), 가정의 역기능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임영선 1999),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적 적응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낮으며(이윤정, 2000) 반면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우울, 불안이 높다(김지영, 2002).

편부, 편모, 부모부재에 따라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어머니의 역할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Spitz는 한 살 미만의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을 박탈당했을 때 심신발육이 부진하고 질병이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하여 드물게는 죽음에 이른다(윤석주, 2001 재인용)고 하였다. 어머니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내심이 부족하고 감정표현이 자유스럽지 못하여 무분별하게 감정을 폭발하며 어른이 되어도 타산적이거나 이기적으로 되기 쉽다(김광률, 1987).

정원식(1984)은 부자가정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모성과의 상호작용, 정서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애정적 역할, 여아의 동일시 대상이 결핍되기 때문에 자녀의 건전한 성격형성을 저해하기 쉽다고 한다. 따라서 부자가정에서 야기되는 모성실조의 장기적 영향으로 감정 통제 결핍, 공격성 행동의 분별없는 표현, 죄의식의 결여, 인내심의 부족,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이외에도 김주수, 이희배,(1986)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자가정 청소년은 정서적 문제, 학업지도의 결여, 탈선이나 비행의 우려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모자가정은 정서적으로는 부자가정보다 안정될 수는 있으나,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장애로 대두되며, 이로 인한 긴장감, 열등감 및 비교육적 환경 등이 자녀의 심리상태를 왜곡시킨다.

Jacob(1975)은 가족 상호작용 연구의 고찰을 통해 비행청소년 가족과 정상청소년 가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행청소년 가족은 부모의 의견불일치가 잦고 자녀에게 모순된 지시를 내리며, 가족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모-자녀가 평등하거나 자녀중심의 위계질서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보다 더 많이 나타내고,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을 잘못 인식하거나 타협을 싫어하는 경향이 높다(조윤정, 2000, 재인용).

따라서 편모가정은 가정환경이 결손상태이지만 모가 자녀를 사랑과 정성으로 교육하고 부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모가 극복한다면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편부가정은 모의 결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적, 정서적 기능에 장애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모성에 바탕을 둔 생활훈련이 어렵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부는 모의 결손으로 인한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더욱 다정하고 자상하게 자녀를 보살펴야 하며 가까운 친·인척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모의 부재에 따른 허전함과 부에게 말할 못할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가정환경을 친애와 자율적으로 만든다면 부모의 부재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나은 심리적 특성을 형성할 수 있다.

5. 결손형태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가설 3. 결손형태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손형태에 따른 영역별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분석은 <표IV-6>과 같다.

<표IV-6> 결손형태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분석

변인	구분	N	M	SD	F	Scheffe
도덕적 문제 행동	편모가정	163	1.24	.33	1.25	N/S
	편부가정	290	1.31	.49		
	부모 부재가정	193	1.28	.40		
	전체	646	1.28	.42		
물질적 문제 행동	편모가정	163	1.46	.41	1.95	N/S
	편부가정	290	1.54	.54		
	부모 부재가정	193	1.55	.51		
	전체	646	1.52	.51		
공격적 문제 행동	편모가정	163	1.11	.27	1.40	N/S
	편부가정	290	1.13	.41		
	부모 부재가정	193	1.12	.32		
	전체	646	1.12	.35		
음성적 문제 행동	편모가정	163	1.32	.36	1.20	N/S
	편부가정	290	1.38	.47		
	부모 부재가정	193	1.38	.43		
	전체	646	1.36	.43		
전체	편모가정	163	1.31	.30	1.40	N/S
	편부가정	290	1.37	.45		
	부모 부재가정	193	1.36	.38		
	전체	646	1.35	.40		

<표IV-6>에 나타난 결손형태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손형태에 따른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도덕적, 물질적, 음성적 문제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결손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연구가설과 일치하지 않다. 즉 연구가설 4는 기각되었다.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분석은 <표IV-7>과 같다.

<표IV-7>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분석

변 인	구 분	N	M	SD	F	Scheffe
건강 유능성	한국	411	4.12	.72	.95	N/S
	일본	39	4.05	.69		
	싸이판·미국	50	3.93	.76		
	기타 국가	80	4.08	.73		
	타 도시 장기거주	50	4.16	.59		
	전체	630	4.10	.71		
애정의 표현성	한국	411	3.75	.91	1.60	N/S
	일본	39	3.71	.87		
	싸이판·미국	50	3.51	1.08		
	기타 국가	80	3.66	.95		
	타 도시 장기거주	50	3.95	.83		
	전체	630	3.74	.92		
갈등	한국	411	2.12	.90	.97	N/S
	일본	39	2.35	.98		
	싸이판·미국	50	2.18	.94		
	기타 국가	80	2.27	1.05		
	타 도시 장기거주	50	2.19	.89		
	전체	630	2.16	.93		
의사 소통	한국	411	3.54	.58	1.46	N/S
	일본	39	3.38	.65		
	싸이판·미국	50	3.45	.60		
	기타 국가	80	3.48	.64		
	타 도시 장기거주	50	3.66	.55		
	전체	630	3.52	.60		
전체	한국	411	3.45	.49	1.14	N/S
	일본	39	3.44	.44		
	싸이판·미국	50	3.34	.48		
	기타 국가	80	3.44	.45		
	타 도시 장기거주	50	3.55	.42		
	전체	630	3.45	.48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은 <표IV-8>과 같다.

<표IV-8>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분석

변 인	구 분	N	M	SD	F	Scheffe
도덕적 문제 행동	한국	411	1.26	.42	.87	N/S
	일본	39	1.28	.40		
	싸이판·미국	50	1.35	.49		
	기타 국가	80	1.33	.48		
	타 도시 장기거주	50	1.31	.37		
	전체	630	1.28	.43		
물질적 문제 행동	한국	411	1.53	.51	.50	N/S
	일본	39	1.55	.54		
	싸이판·미국	50	1.59	.54		
	기타 국가	80	1.47	.49		
	타 도시 장기거주	50	1.53	.45		
	전체	630	1.53	.51		
공격적 문제 행동	한국	411	1.12	.38	.36	N/S
	일본	39	1.09	.24		
	싸이판·미국	50	1.09	.21		
	기타 국가	80	1.13	.33		
	타 도시 장기거주	50	1.17	.35		
	전체	630	1.12	.36		
음성적 문제 행동	한국	411	1.37	.45	.34	N/S
	일본	39	1.36	.40		
	싸이판·미국	50	1.35	.37		
	기타 국가	80	1.33	.45		
	타 도시 장기거주	50	1.42	.43		
	전체	630	1.37	.44		
전 체	한국	411	1.35	.40	.18	N/S
	일본	39	1.35	.34		
	싸이판·미국	50	1.38	.39		
	기타 국가	80	1.34	.43		
	타 도시 장기거주	50	1.38	.37		
	전체	630	1.35	.40		

<표IV-7>, <표IV-8>에 나타난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와 청소년 문제행동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가족기능과 청소년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갈등, 의사소통이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 등 청소년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 연변지역 결손가정의 가족기능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와 상관되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가정 형태와 결손의 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 문제행동까지는 유발하지 않았으며 부모가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청소년과 함께 동거하느냐와 누가 부재하느냐에 따라서 결손가정의 기능이 차이가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지역 결손가정의 일반적 상황과 가정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가정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가정형태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결손의 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결손의 형태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연변지역 결손가정기능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예방이나 해결방안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중국 연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족 학교 중학교2학년과 고등학교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1,450명을 대상으로, 정상가정 청소년 615명, 결손가정 청소년 8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1,425명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사도구로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는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Beavers, Hampson 및 Hulgus(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 (Self-report Family Inventory II: SFII)를 박효원(1993)과 조윤정(2000)이 번안한 22개 문항, 4개 하위요인(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갈등,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가족기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행동 척도는 기존연구(김경화 1989; 김영국 1991; 김인자 1991;

민하영;유혜경 1986; 정주영 1986; 정명희 1988; 허인수 1998)를 참조하여 조운정(2000)이 알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로서 총 28개 문항으로 ‘도덕적 문제행동(7문항)’, ‘물질적 문제행동(3문항)’, ‘공격적 문제행동(9문항)’, ‘음성적 문제행동(9문항)’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12.0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가정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와 가정형태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혼형태에 따른 결혼가정 가족기능과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과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총 1,425명의 조사대상 중 중학교 2학년 결혼가정 청소년 453명(55.9%), 고등학교 2학년 결혼가정 청소년 357명(44.1%), 남자청소년이 317명(39.1%), 여자청소년이 493명(60.9%)으로서 총 표집 청소년 수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즉 이는 전반적으로 연변지역에 부모의 결혼으로 인하여 결혼가정 청소년이 많음을 시사한다. 결혼가정 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결혼가정 청소년 중 편부가정 학생 290명(44.9%), 편모가정 학생 163명(25.2%), 양친이 부재한 청소년 193명(29.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조사를 보면 한국으로의 출국이 411명(65.2%)으로서 중국 연변지역 경제상황이 안 좋은 원인으로 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부모들이 한민족언어를 사용하고 생활습관이 비슷한 한국으로 출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을 살펴본 결과 결손가정과 정상가정에 있어서 가족기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p < .001$). 즉 정상가정이 결손가정에 비해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고 갈등은 정상가정이 결손가정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상가정이 결손가정에 비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형태에 따른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아직 연변 지역 청소년들은 가족기능상에서는 결손가정이 정상가정에 비해 기능이 낮지만 문제행동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가족기능에 한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예방을 위한 조치와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결손가정에서의 결손형태에 따른 결손가정의 기능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손형태에 따라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p < .001$, $p < .01$)가 있지만 갈등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 특히 양친이 모두 부재 시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의사소통이 낮으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할 때가 아버지와 생활할 때보다 가족기능성이 더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결손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결손형태는 연변지역 청소년들의 가족기능에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것이 곧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기능의 약화는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므로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2. 결론

이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56.9%가 결손가정 청소년에 속하며 전반적으로

연변지역에 부모의 결손으로 인한 결손가정 청소년은 과반수를 차지한다. 결손의 형태에 따라서 보면 결손가정 청소년 중 편모가정 혹은 편부가정, 혹은 부모가 부재하여 어머니와 살거나 아버지 혹은 조부·조모, 친척, 선생님의 집에 위탁하여 동거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크다.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에 따른 조사에서 한국으로의 출국이 411명(65.2%)을 차지하는데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많은 부모들이 국외 혹은 국내로의 진출로 인해 구조상 결손형태를 이루고 있는 청소년이 적지 않음을 나타낸다.

둘째, 가정형태에 따른 가족기능을 살펴보면 정상가정이 결손가정에 비해 건강·유능성, 애정의 표현성, 의사소통 면에서 기능이 원활하다.

이는 결손가정은 어느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특성상 심리적 안정과 여러 가지 부딪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셋째, 결손형태에 따른 결손가정의 기능을 보면 부모부재가정 시 기능이 낮으며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이 가족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는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자녀 교육면에서 우세를 차지하며 아버지가 국외, 국내 진출을 하더라도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실시함이 보다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3. 제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손가정의 가족기능과 향상과 청소년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기능적 측면 즉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

향을 알고 조치를 취하게 한다. 연변지역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현시대 청소년들의 발달특성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심한 배려와 그들에게 진정한 이해의 눈빛을 보내도록 한다. 또한 그들 자아의 성장을 도와주고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예방하여 일상생활 중에서 부딪치는 갈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와 끊임없이 정직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고 갈등을 감소시켜 심리적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한다. 가정 내에서 자녀와의 대화기법, 갈등 해결, 의사소통, 애정의 표현성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의 경향성을 알고 가족기능과 청소년 문제행동 관계, 더 나아가 청소년범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게 함으로서 신속히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병폐현상으로 인해 기능적 결손가정은 많은 청소년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문제를 학교나 사회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청소년과 밀접한 가정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가정에서 부모의 부재상황이더라도 주변사람들의 사랑어린 따뜻한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사가 결손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대화기법과 각종 여가 활동개설이 필요하며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연변에 “사랑의 집”이 설립 되어 있는데 정부와 단체에서 대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셋째, 연변지역 학교 현장에서 가족기능과 연관시켜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예방의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문제행동과 비

행, 범죄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이 필요하고 각종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거나 흡연, 음주, 약물 등의 유혹에 빠질 기회가 열려있으며 자신들의 가정 상황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들이 결손가정이라는 그늘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진채 방황하게 하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를 닦게 하고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을 위한 놀이, 문화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변지역은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극히 미약한 편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해결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다. 연변지역의 결손가정과 청소년들을 위하여서는 하루빨리 이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양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연구의 대상을 지역별, 성별, 결손가정 발생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고 초, 중, 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연령변인을 확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진희(2004).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승자(1985). 가족체계 상호작용 유형과 청소년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상담심리전공.
- 김광률(1987). 결손가정의 돌봄, 교육교회,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기독교 교육연구원.
- 김수길(1970). 한국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연(199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친밀감 및 신뢰감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원옥(2003). 결손가정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성적과 친구지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화(2002).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 김지영(2002).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우울, 불안, 자기개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김지영(2003).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족기능이 청소년가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재문(200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화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준(1992). 정상가족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결손유형에 따른 성격특성, 적응 요인 및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우(2002).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영(2003). 가족기능과 대인관계 및 청소년의 부적응.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가정학과 아동복지전공.
- 김 희(2004). 중학생의 결손가정유형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석사

- 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정화(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애란(2003). 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 박원희(1987). 결혼가정 학생의 성격특성.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효원(1993). 子女가 知覺한 家族體制類型과 靑少年非行과의 關係.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大學院教育學科 相談專攻.
- 서명희(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사회적지지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진경(2002). 결혼가정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송유진(2003).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承延璟(2003). 靑少年이 知覺한 家族體系 및 父母-子女간 逆機能的인 意思疏通과 憂鬱 및 問題行動과의 關係. 석사학위논문, 弘益대학교 教育大學院.
- 신기동(2002). 현대청소년비행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신지혜(2002). 비행청소년의 가족기능 연구에 관한 내용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安秉周(2002). 靑少年의 心理的. 社會的調節變因과 問題行動과의 關係. 박사학위 논문, 인화대학교 대학원.
-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오승숙(1990).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서어비스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유은희, 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3호.
- 유춘진(2004). 결혼가정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 윤경애(2004). **결손가정 청소년의 귀인유형**.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윤형숙(2000). **결손가정학생집단과 정상가정 학생집단의 학교생활 적응도 및 자아개념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이경희(2004). **동거부모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적 안녕**.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 이민주(2002). **가족관계 및 가족갈등이 청소년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영분(1983). **어머니 교육을 통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적 관계 개선에 관한 실험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윤정(2000).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 이은경(2003).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학정(2003). **초등학교 정상가정아동과 결손가정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숙(1998).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 문제 상담을 위한 이해**. 석사학위논문, 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이정옥(2003). **부모의 갈등과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사회복지과.
- 이종은, 박선남, 박호란(2001-b). **고등학교 1·2학년 남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업성취수준 및 성취불안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0(2). 192-201.
- 정경숙(1990). **결손가정 학생의 가정환경 및 성격 특성**.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혜경(2002). **단친 가족의 가족구조 및 기능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조윤정(2000).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석사학위논문, 全南大學校 大學院家庭管理學科.
- 주경옥(2001). 역기능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일탈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성숙(2002). 가정환경과 비행청소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차순호(2003). 한 부모 가정 아동 및 부모부재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 천성렬(2001). 결혼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격 특성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상숙(1993).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현숙(2004). 결혼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응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崔花淑(1991). 靑少年犯罪의 家庭環境要因과 家庭環境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淑明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 표하나(2004). 가족기능이 아동의 품행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과.
- 허철수(2000).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지도.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 지도자 연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洪貞姬(2001). 청소년문제에 관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 玄濶剛,李順德(1991). 兩親家庭과 缺損家庭 子女의 스트레스 認知度에 관한 比較研究,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13, No.1, pp.131~146.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98). **敎育學 大백과사전(3)** 서울 : 하우동설.
- 한국교육심리학회 편(2000). **敎育심리학용어사전**, 서울 : 학지사.
- 권이종 외 5인(1998). **청소년 敎育론**. 서울 : 양서원.
- 김동배, 권중돈(1998).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 학지사.
- 김주수, 이희배(1986). **가족관계학**. 서울 : 학연사.
- 김진화 외 11명(2003).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 : 학지사.
- 송명자(2001).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진규(1997). **범죄학**. 서울 : 배경사.
- 유영주(1984). **신가족 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윤태림(1961). **청년 심리**. 서울 : 법문사.
- 이인정, 최혜경(1995).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 나남 출판.
- 정원식(1977). **청소년 지도 : 가능성의 탐구**. 서울 : 배영사.
- 정원식(1984). **敎育 환경론**. 서울 : 敎育출판사.
- 정현숙·유계숙 공저(2001). **가족관계·신경**. 서울 : 학지사.
- 조흥식 외 5인(1997). **가정복지학**. 서울 : 학지사.
- 표갑수(1994). **아동청소년 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 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 婦女聯合會·**關與出國人員和單親家庭子女 敎育狀況的調查**.
- 尙秀云(2004). “**問題少年是問題父母的產物**”. 人民政協報, 全國政協委員 北京市海澱區人民法院法官.
- 新民周刊(2005). “**中國人進入離婚率迅猛增長期**”중에서. <http://www.easymr.com>
- 延邊日報(2005.10.2). “**邊延州對外勞務輸出的几点思考**”, <http://www.yanbiancom.gov.cn>).
- 延邊州敎育局(2003). **做好未成年人保護 및 豫防未成年人犯罪工作**”중에서.
- 周芦萍,余長秀(2002). “**城市家庭問題와青少年違法犯罪**”중에서. **青少年導刊**.
- 中國延邊 . <http://www.yanbian.cn/yanbian>).
- Aldous, J.(1978). *Family Careers,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Bra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ranes, H., & Olson, D. H. (1985)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Gross, I. N.,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Abstract

The Effects of the Broken Families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Juvenil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anbian, China, Area

Ryu, Hyang-Ra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dvisor: Prof. Park, Tae-soo)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 the identification of broken family types in the Yanbian, China, area, and (b) the examination of the behavioral problems of juveniles raised in the broken family in terms of health, ability, expression of affection, conflict, and communication by analyzing the moral, materialistic, offensive, and negative behaviors of juveniles. The paper also intends to provide both the family of juveniles and society as a whole with the basic data and information for preventive programs or solutions in dealing with the following four issues: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related variables and the family functional variables.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related variables and the behavioral problems.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oken families and the family functional variables.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oken families and the behavioral problems.

The method employed in this research was a questionnaire method.

Subjects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ll of whom were second grade students in the Yanbian, China, area. A total of 1,4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only 1,425 of them were analyzed for results.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is method. The questionnaire included a total of 22 items and 4 subsidiary items in terms of family functional variables, as used in Park Hyo-Won(1933) and Cho Yun-Jung's (1993) version of the Self-report Family Inventory II: SFI II designed by Beavers, Hampson, and Hulgus (1990). In terms of the behavioral problem variables, the questionnaire involved a total of 28 items and 4 subsidiary items, as used by Cho Yun-Jung's (1993) version of Kim Kyung-Hwa (1989), Kim Young-Kook (1991), Kim In-Ja (1991), Min Ha-Young & Yoo Hye-Kyung (1986), Chung Joo-Young (1986), Chung Myung-Hee (1988), Huh In-Soo (1998). Analysis of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process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verages, percentages, t-tests, Pearson's correlation, F-tests, and the Scheffe, as well as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ut of 1,425 subjects (or 741 middle school students and 684 high school students), a total of 810 students (56.9%), or 453 middle school students (55.9%) and 357 high school students (44.1%), were from the broken family. Among the number of 810 students, the parents of 411 students (65.2%) were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leaving their children alone in China, the parents of 50 students (7.9%) were living separate in mainland China, leaving their children alone at home; and the parents of 39 students (6.2%) were living in Japan, leaving their children alone in China. Most of such parents and their children were living separate for reasons of economy, culture, and language. It is certain that less favorable economic situation in Yanbia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broken famili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types and the family functional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more positive aspects in the normal families in terms of health, ability, expression of affection, and communication than in the broken families. There was little significance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havioral problems and the family types. This is contrasted with the fact that there was a signific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types and the family functional variables.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there be preventive measures and programs for positive values and attitudes on the part of juveniles.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oken families and the family functional variables of a family of adopted mother, a family of adopted father, and a family of no parents, there was the highest level of significance in a family of adopted father in terms of health, ability, expression of affection, and communication, while there was the lowest level of significance in a family of no parents in the same domains.

Fourth, on the whole,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oken families and the behavioral problems. That is to say, there was a great signific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oken families and the family functional variables, but no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oken families and the behavioral problems.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a) there be educational programs for developing personality on the part of juveniles in order to prevent and reduce behavioral problems relating to juveniles; (b) there be joint ventures of individuals, schools, and society in the improvement and promotion of family functional variables; and, more specifically, (c) there be programs developed and implemented, such as programs for juveniles' development, programs for juveniles' personality, programs for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of family functions, to name a few, as well as self-discipline on the part of juveniles.

부 록 목 차

<부록-1> 가정배경	63
<부록-2> 가족기능척도 검사지	65
<부록-3> 문제행동척도 검사지	67
감사의 글	69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정황과 학생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옳고 그른 것이 없으며, 좋고 나쁜 것, 정답과 오답도 없습니다. 또한 이름도 기재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응답지와 합쳐져서 통계처리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응답이 학교와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번거롭고 짜증스럽겠지만 진지한 자세로 한문제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 11월

한국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류향란

<부록-1>

가 정 배 경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년: ① 중2 ② 고2

2. 성별: ① 남 ② 여

3. 부모가 출국한 상황

부모 부재 상황
① 편모
② 편부
③ 부모부재

4.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

외국출국 및 국내 타 도시 장기거주	
① 한국	④ 기타 국가
② 일본	⑤ 타 도시 장기거주
③ 싸이판 · 미국	

<부록-2>

가족기능척도

5. 다음은 가족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V 하세요.☺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 이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가족은 서로의 기분에 신경을 써준다					
2	우리 가족은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 한다					
3	우리 가족은 집안일에 있어서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 한다					
4	가족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어른들 도 잘 따라주신다					
5	우리 가족은 가족원 각각의 다른 점 을 존중 한다					
6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를 인정해준 다					
7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표현을 잘 한 다					
8	우리 가족은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9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한다고 느낀다					
10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11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 한 다					
12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잘 해결해나간다					
13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14	우리 가족은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1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각자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준다					
16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 한다					
17	우리 가족은 가족원 중 누구하고라도 대화가 잘 통한다					
18	우리집 어른들은 편애하는 경향이 있다					
19	일이 잘못 될 때면 우리가족은 서로를 탓 한다					
20	우리 가족은 많이 다툰다					
21	우리 가족은 서로 무시 한다					
22	우리 집의 분위기는 대체로 슬프고 우울하다					

<부록-3>

문 제 행 동 척 도

6. 다음은 학생의 경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V하세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이다	종종 한다	많이 한다
1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2	유흥업소(호프, 락카페, 나이트클럽, 술집)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3	학교에서 근신이나 경고 처분 혹은 퇴학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4	이성과 키스나 애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5	이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6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지시한 것을 일 부러 어기거나 반대로 행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7	음란전화로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8	음란 비디오, 음란 사이트, 음란서적 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9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습 니까?					
10	부모님이 허락한 귀가시간을 어기고 밤늦도록 놀다가 집에 간적이 있는 가?					
11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을 함부로 파손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적이 있습니까?					
12	장난 삼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 있습니까?					
13	남의 물건이나 돈을 헐박으로 빼앗은 경험이 있습니까?					
14	다른 사람을 때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15	패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16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17	가출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18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19	부모님 허락 없이 외박한 적이 있는가?					
20	부모님 허락 없이 여자친구(남자친구)들과 여행을 간 경험이 있습니까?					
21	경찰서나 파출소에 잡혀 간 적이 있는가?					
22	환각제나 본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23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량 씨클이나 폭력 씨클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24	남녀혼숙, 합숙한 경험이 있습니까?					
25	시험을 위해 컨닝 페이퍼를 만들거나 컨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26	친구를 왕따(따돌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27	자살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28	자해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수 고 하 셴 습 니 다 ~

감 사 의 글

연초록 새순이 돋는가 싶더니 어느새 잎들은 퍼드러져 제법 굵은 빗방울을 견디는 계절, 장마 기간이 되었습니다. 잦은 소나기를 맞으며 불쑥 다가온 여름을 느낍니다. 교정을 거닐면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서 굵은 빗방울과 거대한 바람에 나뭇가지 꺾여 생채기 난 가로수가 눈에 밟힙니다. 예전에 스쳐 지나쳤을 풍경 하나하나가 눈에 밟히는 까닭은 제주에서의 생활을 한단계 마무리 짓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걸어온 길은 저 폭풍같은 비바람속이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주도’란 한국의 남쪽 섬에 오고자 했을 때부터 폭풍 속에 발을 딛은 것일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걱정어린 만류를 뿌리치고 이곳으로 온 까닭은 상담심리에 대한 배움의 욕망과 연변지역 청소년, 학부모와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모든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소망 한가닥 때문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 속에 험벗은 나무가 얼마나 연약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욕심은 큰데 능력이 따라주지 않기도 했었고 학업과는 또 달리 가족과 떨어진, 제가 선택한 자유에는 생활에서의 고독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은사님과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유학과정 학업에 아낌없는 조언과 정보,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일일이 챙겨주시며 제 미약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성심성의로 지도 해주신 박태수 교수님, 허철수 교수님, 김성봉 교수님과, 통계처리를 맡아주신 박정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에 힘이 되어주시고 제주도 유학생생활에 안정을 주신 학생생활관 관장님이시며 영문과 교수님이신 변명섭관장님, 김선희 교수님, 서영진 과장님, 강철승 과장님, 오승남 선생님을 비롯한 행정실 여러 선생님들, 자료 지원에 도움을 주신 도서관 양대옥 과장님 감사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처럼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주신 강은주 선생님, 강차선 선생님과 부희옥 선생님을 비롯한 동기 여러 선생님들, 한인숙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 이 자리를 빌어서야 전합니다. 또 고무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김경순 선생님과 마음의 벗인 박미선씨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연길시 교육학원 김영옥, 훈춘시 진수학교 최애선,

룡정시 오홍매, 화룡시 진수학교 지련희 선생님과 도문시 교육국 김춘옥국장님, 김명철 과장님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 전합니다.

끝으로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신 부모님과 지지해주고 항상 마음의 힘을 불어넣어준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는 더욱 뿌리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푸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



2006년 8월

류 향 란